

칼럼

임성욱 시인 · 사회복지학박사



세상사 부질없다

차매. 참으로 무서운 괴물이다. 아무리 지독한 병이어도 자기 자신만은 인지할 수 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조차도 모르게 만들어버린다.

아직까지 완치약도 없다. 좁쌀 같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회적 신분 따위에는 눈길도 주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는 평등한지도 모른다. 그러나 공포심을 갖지 않을 수 있겠는가.

미국의 전 대통령 레이건도 치매환자였다. 대통령이었다는 사실도, 자신의 이름도, 사랑하는 부인인 낸시 여사까지도 잊어버렸다. 영국의 전 수상 대처 역시 마찬가지다. 언제가 사진에서 그의 모습을 봤을 때 인생무상을 느꼈었다. 초점 잃은 희멀건 동공. 그저 한 사람의 늙고 병든 노파였을 뿐이었다.

항상 그 곁을 따라다녔던 철혈 재상의 모습은 온데 간데도 없었

다. 이 두 괴물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친 인물들로도 유명하다. 그야말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세계적인 거물이었던 것이다.

우리나라 여성계의 거물 이태영 박사도 치매환자였다. 그에게는 수많은 최초, 수석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다녔다. 일단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다. 서울대학교 역사상 최초의 여대생이기도 하다. 이화여전(현, 이화여대)을 수석 졸업했다.

그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합격해서 법학박사까지 되었다. 1952년에는 제2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최초의 여성합격자였다.

하지만 원하는 법관은 되지 못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반대로. 이유는 간단했다. 여성판사는 시기상조라는 것. 지금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조처다. 그 당시 여성의 지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를 극명하게 보여준 장면이다. 그 후 평생을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여성의 인권확립과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유교적 인습에도 저항했다. 그렇게 일 세대를 풍미하고 영민했던 그도 치매를 피해가지는 못했다.

과거 은막의 여왕이라던 배우 윤정희 씨,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 영화의 황금기로 불리던 1960년대에 문희, 남정임과 함께 여배우 트로이카 시대를 열었던 그도 말이다. 지금까지 영화 330여 편에 출연하면서 대중상, 여우주연상 등 24차례에 걸쳐 각종 영화상도 받았다고 한다. 출중한 미모에 훌륭한 연기. 그 당시 국민들의 부러움 대상이었다고 한다. 이런 그가 이미 15년 전부터 앓아왔다고 한다.

20세기의 위대한 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미래사회에 대해 이런 예언을 했다. “과학기술

이 인간 사이의 소통을 뛰어넘음 그날이 두렵다. 세상은 천지들의 세대가 될 것이다”라고.

오늘날은 스마트 시대다. 이것이 역설적이게도 백치의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실 필자도 옛날에는 줄줄이 외웠던 전화번호. 이제는 어렵다. 심지어는 내 전화번호를 누가 가르쳐달라고 할 때도 대뜸 바로 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모든 게 자동화 되어가는 우리의 시대. 바보들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로 인해 차매가 가속화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두렵다.

어떤 미래학자는 “미래는 전쟁도 활이나 칼로 할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다. 우리 모두가 깊이 새겨봐야 될 현상들 아닌가. 세상사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제발 아름답게 살자. 증상 모리배들일랑은 되지 말고, 서로가 사랑하면서 살아도 주어진 시간은 별로 많지 않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면서 왜 그리들 식막한가. 특히 정치인들은 명심하라. 자고로 정치인들의 뒤끝은 별로였다. 역대 대통령들만 봐도 알 수 있잖은가. 인생사 그저 허망한 구름조각일 뿐이다. 사악한 욕심이 일그러진 초상판 만들 뿐이다. 오! 통재라.

社 說

금연으로 돌연사 예방해야

금연 캠페인이 지속적이고도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흡연이 건강에 끼치는 해악이 적지 않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도 많은 흡연자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볼 수 있다. 그들의 흡연은 본인은 물론 주변인에게도 폐를 끼치게 됨은 주지의 사실이다.

흡연자인 경우 사회활동이 가장 활발한 40~50대에 심혈관계 질환 등으로 갑자기 사망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분당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윤창환 교수 연구팀은 2002~2013년 정기 검진을 받은 사람 중 50만여명의 국민건강보험 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40대 흡연자는 급성심근경색 등 심장계통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도가 비흡연자 대비 약 2.79배 높았고 50

대 흡연자는 심장 외의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도가 비흡연자 대비 약 2.8배 높았다.

급성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 등 심장 계통 급성 질환 발병은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흡연자와 비흡연자 그룹 사이의 위험도의 차이가 좁혀졌다. 70대 이상 등 고령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폐암이나 심장의 질환의 경우 흡연자군에서 평생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내원하는 젊은 남성 환자는 거의 예외 없이 흡연자로 이번 연구결과에서 보여주듯 담배가 젊은 나이에 돌연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반면 금연자의 경우 비흡연자와 비교해 돌연사 등 위험도에 큰 차이가 없는데 이는 즉시 금연하는 것만이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란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미아·기술인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기상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인광의료콜 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 ▲수도 고장신고 121
- ▲전기고장 신고 123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가 00091 (일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팩스 (062) 222-5547

대표이사·회장·발행인 김 평 호
편집인·편집국장 강 서 원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남문로 753번길 7
서울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세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가족 모두의 안전은 전좌석 안전벨트로부터!

을 날씨에는 가족들과 즐거운 여행 및 캠핑을 위해 장거리 운전을 하게 된다.

차량 이동 시 우리는 전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한다. 현재 모든 도로에서 차량 내에서는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법을 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이다.

차량에서 안전벨트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벨트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줄 필

요가 있다. 그러나 운전을 하게 되면 어린이 뿐 아니라 어른들의 안전벨트 미착용 사례가 종종 눈에 띄기도 한다.

행동이 제한적일 수 있어 불편하지만, 없어서는 안 될 안전장치이며 어서라도 안 될 사고에 대비하여 신체를 지켜 줄 수 있다.

외부로부터의 충격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만큼 강하기 때문에 절대로 본인의 힘으로 사고의 손상을 줄일 수는 없다.

우리는 주변에서 교통사고를

보면 경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안전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종종 심각한 교통사고 현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안전에 대한 인지는 항상 숙지하여야 한다.

또한 위험상황이 발생 하였을 때 대처하면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국민들이 혹여나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크게 다치지 않기를 바라며 출동을 하게 되지만 현장에 도

착하여 안전벨트를 하지 않아 중상을 당한 환자를 보았을 때 착잡한 마음이 들지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적절한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 후 상황이 끝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게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들이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항상 바라고 있기에 졸음운전 금지, 음주운전 금지, 안전벨트 의무화 등 숙지해주시기를 권장하는 것이 아닌 백 번 강조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부탁드리는 바이다.

김태현 / 영암119안전센터 소방교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